

# '서남해 전쟁' 해경 다치고...죽고...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 유자 땅에 이어 16일부터 쌍굴이 어선 등 중국 타망 어선에 대한 조업이 이뤄지게 돼 불법 조업에 나설 중국 어선 숫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단속을 피하려는 중국 어선을 제압하기 위한 진화된 단속 장비 보급이 지체되는가 하면, 단속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별써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섰다 실패하거나 단속반원들이 부상을 입는가 하면, 긴밀한 협조 체계 없이 독자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중국 어선에 밀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께 신안군 흑산도 가거도 북

## 중 어선들 칼·도끼·화염병 무장 갈수록 흉포화 진화된 단속 장비 보급 늦고 협조 체계도 미흡 목포해경, 불법조업 5척 나포...해경 2명 부상

서쪽 약 68km 지점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노영어 71186호(100t) 등 2척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이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해경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혐의로 단속했던 중국 어선 노영어5197호(100t) 등 3척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배 측면에 설치했고 식칼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우리측 단속 경찰의 승선을 막았다.

특히 해경은 최상실이 설치된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대형 단속 장비인 '결핵형 등선 사다리'를 고안, 사용키로 했으면서도 중국 어선이 밀려드는 현재까지 일선 현장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낙장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결핵형 사다리는 승선을 막기 위해 배에 철관을 두르

는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전술 회의까지 열고 마련한 대응 장비다. 이 때문에 결핵형 사다리를 갖지 못한 서남해안 단속 경찰 측은 여전히 철관을 강제로 뜯고 진입하는 방식을 쓰면서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아예 승선을 하지 못해 단속을 포기, 돌려보내고 있는 처지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경에 비해 인원이나 장비가 열악한 탓에 단속 과정에서 때를 이뤄 달려들면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밀려 단속에 실패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인 서해어업관리원들은 해경과는 달리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데다, 1~2척씩 단속에 투입돼 무

허가 선박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내놓았던 '불법 조업 방지대책'에 따른 단속 장비 보완도 경찰 위주로 진행됐고 단속 인원 확충도 이뤄지지 않아 서해어업단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조 체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단속 전부터 해경·해군과의 공조 속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불시에 요청해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자칫 거리·시간 등의 이유로 합동 단속이 이뤄지지 못할 때도 발생한다.

서해해경청이 서해어업단, 목포해경 등과 함께 지난 1일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협업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및 합동 단속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해경과 어업단은 이달 중순부터 중국 유자망과 타망 어선이 대규모로 불법 조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500t급 이상 선박을 해상에서 항시 배치하고 양측 선박 2~3척이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장비 등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투입되는 단속 선박 및 인원에 걸쭉 중국 선박 수가 훨씬 많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4원침 (8897)



**노인의 날 '인생은 즐거워'** 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개최한 '제14회 적십자 노인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에 참가한 '강귀자 문화교실'팀이 가요 '독도는 우리땅'에 맞춰 흥겹게 율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현재, '자가용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합헌 결정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양모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사이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률 100%

광주·전남지역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100%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소방본부는 이 지역 8249개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는 학원,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4412개소 중 휴·폐업 업소를 제외한 4163개소가, 전남도는 4728개 업소 중 4086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소 등 영업개시 전까지 가입이 유예된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올 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음식점,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요지경' 고속버스

음주·소란에 낮뜨거운 애정행각 끝물견  
운전자들 '신경쓰다 사고날라' 스트레스

고속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몸짓을 하는 '진상 승객들' 때문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운전하는 것 보다 승객 대응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고속버스 안에서 진한 애정행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중간에 내려달라는 승객도 부지기수라는 게 버스 기사들의 설명이다. 이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술에 취한 승객. 타는 순간부터 "제발 골개 자다 내렸으면..."하는 기대를 어김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가 하면, 옷, 신발을 벗고 다른 승객이 앉아있는 앞좌석 팔걸이에 맨발을 걸친 채 코를 심하게 고는 등 다른 승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모(21·서울시 은평구)씨의 경우 지

난달 23일 밤 8시 서울발·광주행 고속버스에서 내리면서 바다에 낙된 자신의 가방에 누군가가 '실례'(?)"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아예 술에 취해 중간에 세워달라고 때를 쓰거나 추운 겨울에 에어컨을 켜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승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칫 이들 승객들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거나 금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 때문에 특이한 사건도 끊이지 않는 것 같다"며 "직인 스트레스나 피로해소를 위해 휴게실, 수면실 등을 마련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거액 사기' 송대관 부인 영장

서울 용산경찰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쟁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0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측정 요구는 뭐러 했지?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경찰서에 간 30대 남성 이 택시기사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관공서 주주소란 혐의까지 추가 적용.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모(35)씨는 지난 1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지구대에서 택시기사 김모(45)씨와 목격자 문씨로 다투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김씨의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것.

○경찰은 "주씨의 요청으로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했지만 수치가 0%가 나왔는데도 수차례 재조사를 요구해 관공서 주주소란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폐수처리시설 신고 협박

## 돈 뜯은 주간지 기자 입건

영양경찰은 2일 폐수처리시설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업체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남 지역 주간지 A사 기자 최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영양군 시종면 폐기물 처리 업체인 H사에서 폐수처리시설이 빈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132만원을 받아 쟁의 혐의다. /영남=문정선기자 moon@

## 현장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 주인등록본 각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초보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노선 : 두암동 → 문충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천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열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박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박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자연산 참우를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우 보양식전문점

###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삼우 삼계탕
- 토종 참우탕 / 우뚝 청동오리 / 우뚝 삼계탕
-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우탕 (9인분 식사 5인분 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우뚝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우뚝** 062)515-5757(우칠우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